

[알파시황]

코스닥, 돈 잘 버는 성장기업들의 증가

코스닥, 닷컴 버블 이후 처음으로 1,000pt 돌파

지난주 코스닥은 1,000pt를 돌파하였다. 닷컴 버블 이후 20년래 최고치 수준이다. 우호적인 대외 환경과 코스닥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코스닥의 수급 개선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고 있다. 우선 할인율에 대한 부담이 낮아졌다. 미국채 10년물은 3월 말 이후 1.5~1.7%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는 할인율 상승에 부담을 느꼈던 성장주들이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었다.

또한 금번 강세장 특징 중 하나는 코스닥 시장 내 거래대금이 확연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 특성 상 거래대금 규모는 유동성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지표다. 과거 코스닥 강세장이었던 15년 중순, 17년말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5조원, 7조원 수준이었으나, 연초 이후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2조원으로 수준으로 레벨업되었다.

2022년까지 계단식 이익 성장 & 돈 잘 버는 성장 기업들의 증가

무엇보다 기초 체력인 이익 성장이 눈에 띈다. 코스닥 영업이익은 2021년 12.8조원, 22년 15.7조원이 예상되며, 순이익은 2021년 9.6조원 & 22년 11.8조원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추정치 기준 21년 순이익은 20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다. 이는 과거 대비 코스닥 시장 내 소위 '돈 잘 버는' 성장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2021년 전체를 그린다면,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 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 코스닥의 추가적인 이익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2021년 코스닥 영업이익 증가율은 1.5%YoY,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은 40.6%YoY 로 코스피가 이익 증가율에서 우위에 있다. 코스피-코스닥 연간 상승률 스프레드와 영업이익의 스프레드 차이는 유사한 궤적을 시현하는 경향이 있다.

IT/헬스케어/커뮤니케이션 시총 상위 기업들의 고른 증가

2015년, 17년 코스닥 상승장을 주도했던 업종이 헬스케어라면, 현재는 IT/헬스케어/커뮤니케이션 시총 상위 기업들의 고른 상승세가 눈에 띈다. 3월 이후 코스닥 시총 증가는 헬스케어(33%), IT(27%), 커뮤니케이션(13%)이 대부분 기여하였다. IT/헬스케어/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코스닥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현재 코스닥 영업이익 추정치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연초 이후 매도 우위를 시현 하였던 외국인과 기관은 3월말 이후 순매수 유입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반영해 1) 시총 5,000억원 이상 KOSDAQ150 기업 2) 높은 연 기금&외국인 수급 공백 3) 21년도 순이익 추정치 상향조정 발생 조건에 부합한 14개 기업을 선별했다. [그림 14 참조]

Investment Idea

Equity



주식시황 이재선
02-3771-3624
jaesun0216@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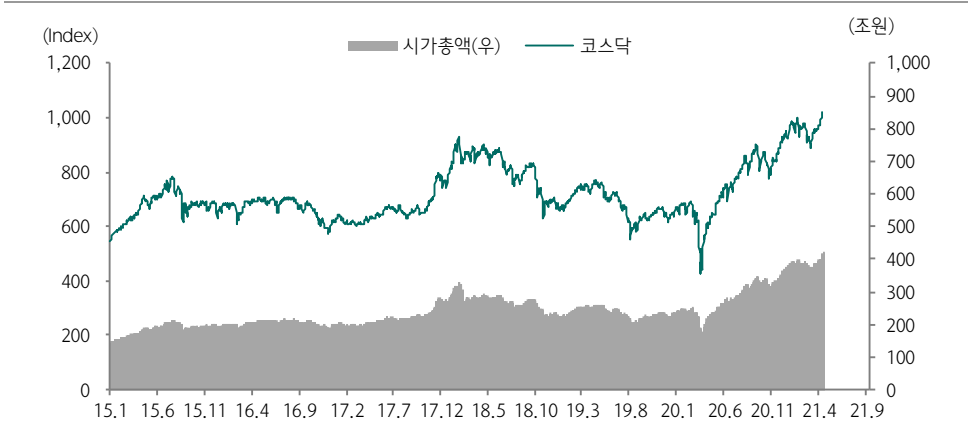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코스닥, 돈 잘 버는 성장기업들의 증가

시가총액은 약 410조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말 385조원에서 25조원 가
량 상승

그림 1. 코스닥, 닷컴 버블 이후 처음으로 1,000pt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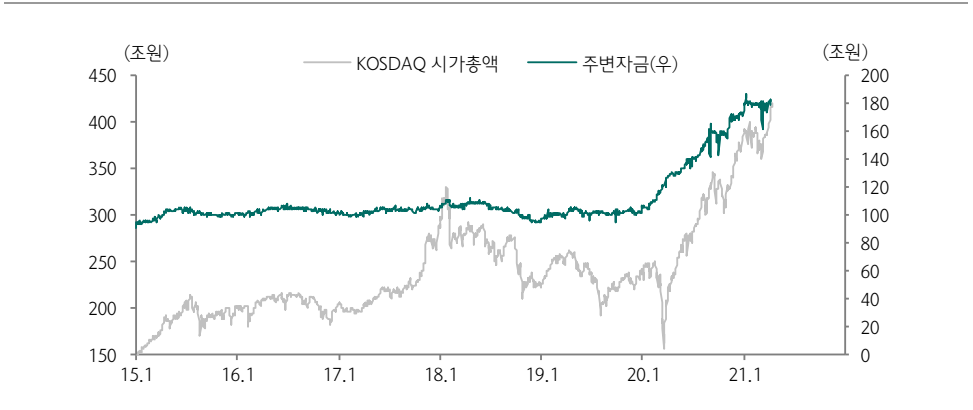


자료: Qunatwise, 하나금융투자

시장을 견인하였던 유동성 모멘텀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점차 둔화

중시 주변자금(고객 예탁금+신용용
자+대주잔고+RP채권 합산)은 연초
이후 180조원 수준에서 정체

그림 2. 중시 유동성은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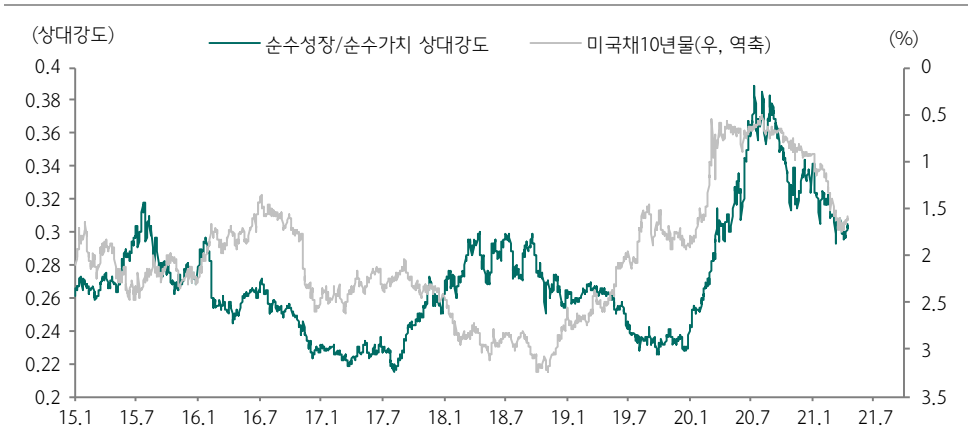
자료: Qunatwise, 하나금융투자

그러나 우호적인 환경이 수급 개선
을 이끄는 중

미국채 10년물 3월말 이후
1.5~1.7% 사이에서 횡보

이에 헬스케어, IT, 커뮤니케이션 등
성장주가 포진되어 있는 KOSDAQ
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

그림 3. 그간 성장주 상승에 제동을 걸었던 미 국채10년물 1.5~1.7% 횡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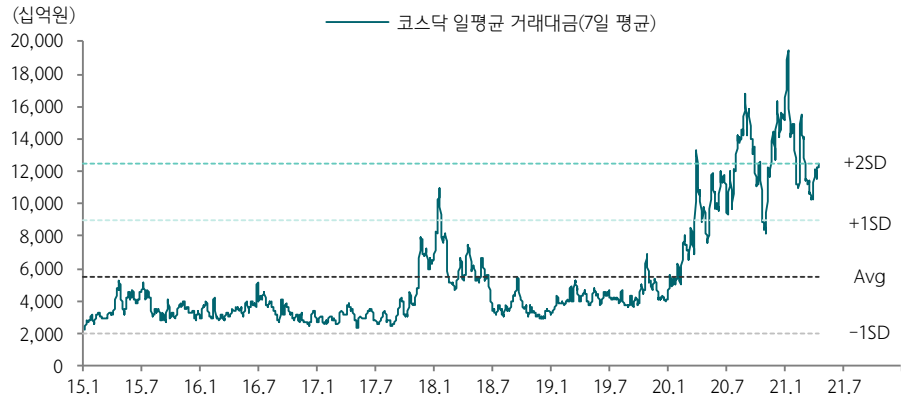


자료: Qunatwise, 하나금융투자

개인 비중이 높은 KOSDAQ 특성 상 거래대금 규모는 유동성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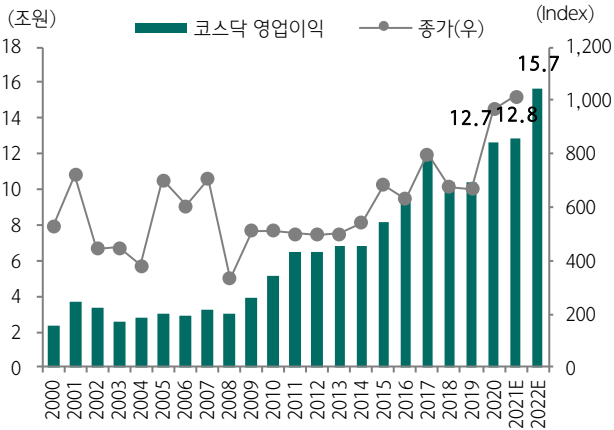
과거 15년, 17년 강세장과 비교할 때 확연하게 레벨업 된 거래대금 규모

그림 4.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3월 증순 이후 반등하며 12조원 수준으로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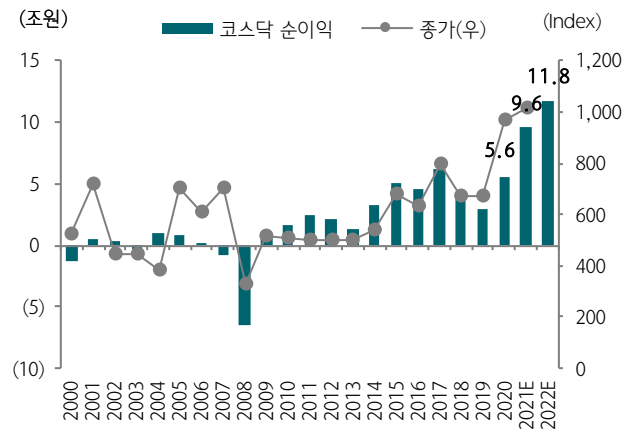
자료: Quna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5. 2022년까지 계단식 이익 성장: 코스닥 영업이익 2021년 12.8조원 & 22년 15.7조원 예상



자료: Quna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6. 돈 잘 버는 기업들의 증가: 순이익은 20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코스닥 순이익 2021년 9.6조원 & 22년 11.8조원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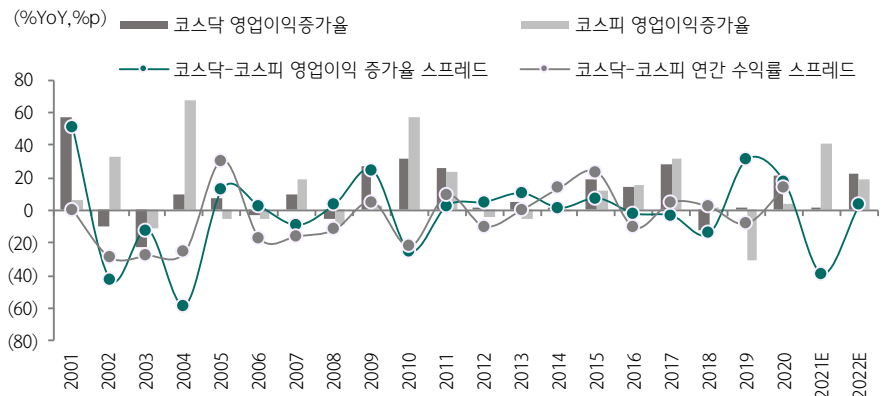


자료: Qunatwise, 하나금융투자

2021년 KOSDAQ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1.5%YoY, KOSPI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40.6%로 KOSPI가 우위

KOSPI-KOSDAQ 연간 수익률과 영업이익 증가율 스프레드는 유사한 궤적을 시현하는 경향

그림 7. 다만 2021년 전체를 그린다면, 코스피 대비 강세 조건은 추가적인 이익 상향조정을 수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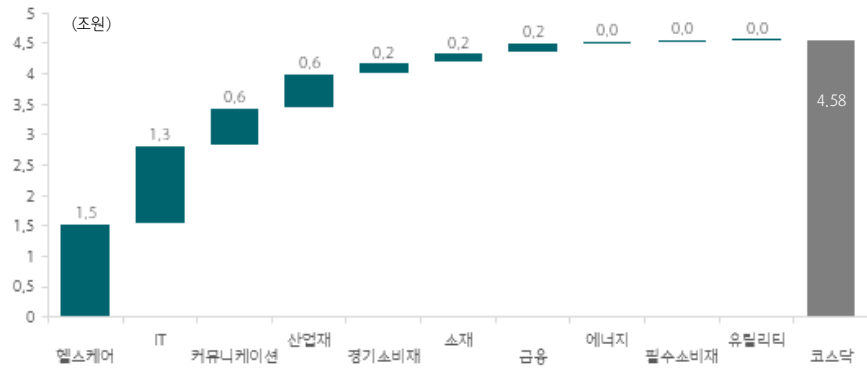
자료: Quna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8. 3월 이후 코스닥 시총에 기여한 업종은 헬스케어 > IT > 커뮤니케이션 순

2015년, 2018년 코스닥 상승장을 주도했던 업종은 헬스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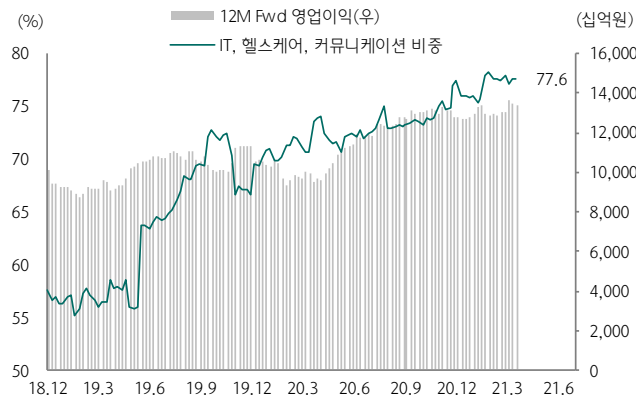
현재는 IT/헬스케어/커뮤니케이션 시총 상위 기업들의 고른 증가

3월 이후 코스닥 45.8조원 증가, 헬스케어(33%), IT(27%), 커뮤니케이션(13%)이 대부분 시총 증가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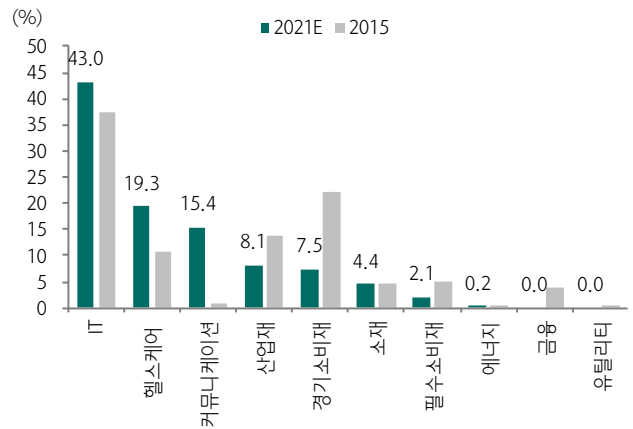
자료: Quna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9. 상위 시총인 IT/헬스케어/커뮤니케이션 섹터의 이익 영향력 확대 점진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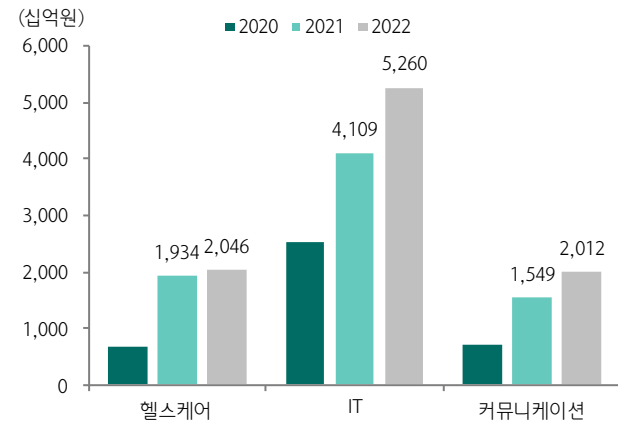
자료: Quna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10. 2015년과 비교했을 때 해당 섹터가 KOSDAQ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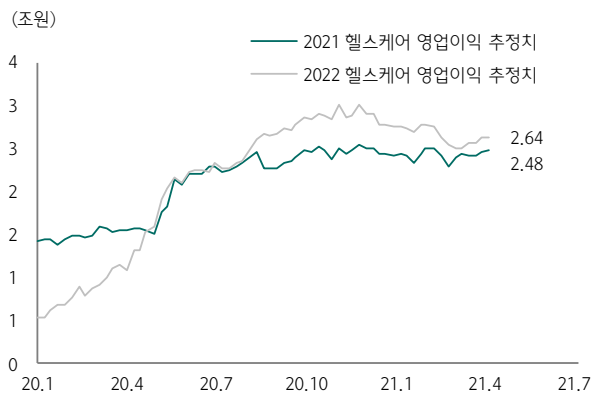
자료: Quna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11. 해당 업종들의 이익모멘텀 2022년까지 유효



자료: Quna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12. 과거 KOSDAQ 급락장을 촉발하였던 헬스케어 또한 이익 레벨업 구간 진입: 영업이익 추정치 3월 이후 반등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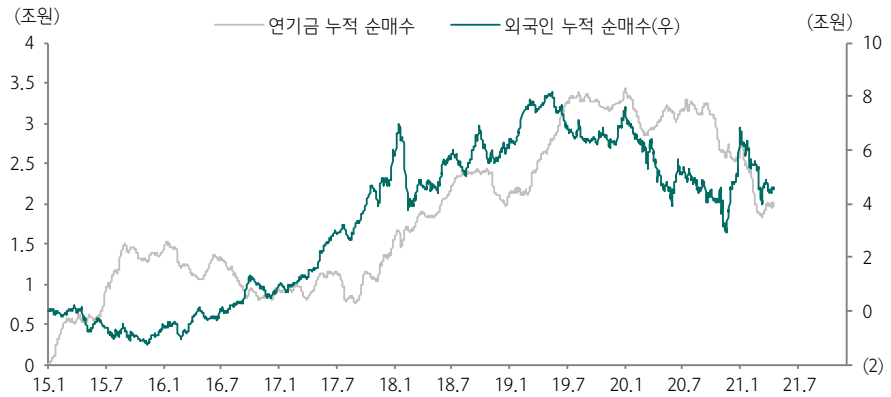


자료: Quna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13. 연초 이후 매도 우위를 시현 하였던 외국인과 기관은 3월말 이후 순매수 유입으로 전환

1월 이후 외국인과 기관은 줄곧 매도 우위를 시현

그러나 3월말 이후 연기금과 외국인이 코스닥 순매수 유입으로 전환하기 시작



자료: Quna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14. 1) 시총 5,000억원 이상 KOSDAQ150 기업 2) 높은 연기금&외국인 수급 공백 3) 21년도 순이익 추정치 상향조정 발생 조건에 부합한 14개 업종을 선별

코드	기업	업종	시가총액 (십억원)	21년도 순이익(십억원)			연기금 매도 강도 (연초 이후)	외국인 매도 강도 (연초 이후)	12M Fwd PER			수익률 ytd
				1월	현재	변화율			1월	현재	변화율	
A091990	셀트리온헬스케어	헬스케어	20151.4	485.7	511.0	5.2	0.5	-2.0	69.4	51.0	-18.4	-18.7
A096530	씨젠	헬스케어	5220.6	693.2	811.9	17.1	-0.6	-0.5	9.3	9.0	-0.4	3.1
A240810	원익 IPS	반도체	2743.8	206.6	237.8	15.1	1.2	-3.3	13.5	14.2	0.8	26.3
A098460	고영	IT 하드웨어	1815.9	40.1	44.7	11.5	0.2	-0.8	39.8	42.8	3.0	-74.8
A108320	실리콘웍스	디스플레이	1610.2	117.3	132.8	13.2	-1.2	-2.2	9.5	14.6	5.0	70.1
A086520	에코프로	화학	1416.0	154.6	165.5	7.1	0.4	-3.5	15.0	12.4	-2.6	29.0
A060250	NHN 한국사이버결제	소프트웨어	1408.9	54.8	55.2	0.6	-0.2	-5.7	38.9	29.4	-9.5	-16.1
A048260	오스템임플란트	헬스케어	1284.3	83.0	95.2	14.7	0.0	-2.7	13.6	19.5	5.9	76.3
A035900	JYP Ent.	미디어	1235.3	55.2	55.9	1.1	-4.2	-3.5	32.2	28.1	-4.1	-9.4
A046890	서울반도체	디스플레이	1134.0	90.0	97.0	7.7	-3.2	1.1	20.4	16.4	-4.0	-5.4
A213420	덕산네오룩스	디스플레이	1076.9	44.6	50.9	14.1	1.7	-2.6	20.7	22.3	1.6	28.7
A097520	엠씨넥스	IT 하드웨어	966.4	97.3	102.2	5.0	0.5	-1.8	9.6	10.9	1.4	33.9
A095610	테스	반도체	687.0	52.8	67.8	28.4	-1.6	-2.3	13.2	11.2	-1.9	17.2
A092190	서울바이오시스	디스플레이	632.6	38.3	42.1	9.9	0.1	-0.3	43.2	28.3	-14.8	-14.0

자료: Qunatwise, 하나금융투자